

강경애 후기 소설과 체험의 윤리학*

— 이산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 —

김양선**

1. 들어가는 말
2. 「소금」의 문제성, 이산(diaspora)과 여성
3. 구여성과 체험의 윤리
4. 신여성의 자기 반성과 구여성
5.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강경애 후기 소설의 특징이 식민지 시기 민족의 상실에서 비롯된 이산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점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이산 체험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금」은 이주 및 이산을 야기한 원인을 여성의 체험 및 생존의 서사와 연관해 다루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소금」의 주인공 봉염모는 가정의 죽음, 중국인 지주의 성적 유린, 출산,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일련의 수난을 겪으면서 계급적, 민족적으로 각성한다. 이 작품은 하층계급 여성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성의 분열적 측면을 잘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을 간도 이주민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찾고 있다.

강경애의 후기소설인 「소금」, 「모자」, 「마약」, 「지하촌」 등은 빈곤의 모성화 양상을 띤다. 작품 속 구여성들은 모성적 사고를 일관되게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를 당면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성은 이산과 이주라는 현실적 난관이 왜 여성에게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이산의 상황을 돌파하거나 상상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한 모성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몸의 체험을 동반하고 있어 현실성을 확보한다.

간도에서의 낙관적 전망이 사라진 후 작품인 「번뇌」, 「동정」에서도 지식인 여성의 자기 반성이라는 맥락에서 구여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강경애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두 축인 '이산의 체험'과 '구여성의 모성 체험'은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민중 여성의 주체 형성이 상호 연동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어 : 이산, 모성, 구여성, 체험의 윤리, 사실주의

1. 들어가는 말

강경애는 작품 활동을 하는 내내 남성들의 성적 억압에 희생당하거나 저항하는 여성, 남성 부재의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티가는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해 가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런 만큼 강경애의 작품은 식민지 시기 여성의 현실과 이의 형상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어 왔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의 작품은 민족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 여성문학이 관련을 맺으면서 각자 내실을 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 “가정 내에서 남성을 도와 일가의 평화와 단란을 도모하며 자녀를 길러 우리 사회에 굳센 일꾼을 보내는 것이 여성의 공통적, 천부적 책임이지만 우리 사회에 결합이 많으니 만큼 우리 조선 여성의 특수한 사명도 있을 것”(「조선 여성들의 밝은 길」, 『조선일보』, 1930.11.28~29)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강경애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조선적 ‘특수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즉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경애의 삶과 작품세계는 우리 현실, 좁게는 간도 현실의 변화를 떼놓고는 제대로 논의하기 힘들다. 그녀가 성취한 여성주의적 리얼리즘은 이민자의 땅 ‘간도’에서 식민지 시대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이 여성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견지했기에 가능했다.¹⁾

1) 이상경은 강경애가 간도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시대에 간도 지방이 가지는 공간적 특수성과 강경애의 작품 세계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본고 역시 이상경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해당 논문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취급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여성의 시각에서 간도 체험과 형상화가 지닌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경, 「만주 항일혁명운동의 문학적 수용-강경애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

따라서 본고는 강경애 작품세계의 두 축이 '간도체험'과 '여성 의식'에 있다고 보고, 양자가 어떻게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간도체험'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기 민족-국가의 상실에서 비롯된 이산(離散, diaspora)이라는 맥락에서 작품을 다시 보고자 한다. 식민 시대에 피식민지 제3세계 여성들은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민, 이주, 이동, 망명, 피난과 같은 탈지역의 궤도를 그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삶의 궤적을 이산(離散)으로 표현하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이동의 형태들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양식들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삼고자 한다.²⁾ 지금까지 간도나 만주로의 이동은 이주라는 말로 통칭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移住)'는 지리적, 물리적 이동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의미 및 식민적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이주에 내포된 식민적 의미를 탈식민적 시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이산'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강경애의 작품에서 이산의 문제는 여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현실로서 그들에게 민족적, 성적 정체성을 심문하고 재구성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적 상황이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그 결과인 이산으로 인해 이산 여성들은 제국의 권위, 남성의 권위에 의해 나중적인 피식민 상대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제국의 타자이자 남성의 타자인 피식민 여성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주의적,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에서 무시된 여성의 아픔에 대한 기억을 정면에서 다루어 왔다.³⁾ 그런 점에서 탈식민의 미학은 동시에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 모더니즘』(민음사, 1989), p.150.

2) Avtar Brah,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Routledge, 1996), p.16.

태혜숙, 「제3세계 여성들의 글쓰기-전지구화, 이산, 민족에 관하여」, 『여/성이론』 9호(여이연, 2003년 겨울), p.14에서 재인용.

3) 태혜숙, 앞의 글, p.250.

강경애가 이산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은 항일무장투쟁의 실패로 인해 민족해방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시기를 배경으로 한 후기 작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⁴⁾ 간도 이주 농민의 빈핍한 삶과 가족의 해체를 항일무장투쟁의 당위성과 연관지어 그린 「소금」(『신가정』, 1934.5~10), 아편쟁이 남편에 의해 중국인에게 팔려간 아내의 죽음을 그린 「마약」(『여성』, 1937),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민중여성의 삶을 사산, 질병, 불구화된 아이들, 팔려가는 딸 등을 통해 제시한 「지하촌」⁵⁾(『조선일보』, 1936) 등은 민족-국가의 호명대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주민, 하층민, 여성, 아동의 비참한 현실을 다룬다. 「번뇌」와 「동정」 역시 간도 용정 부근을 배경으로 항일운동가 가족, 농민 가족 여성의 수난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이 시기 다른 작가들이 근대의 유입과 더불어 등장한 신여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강경애는 구여성, 하층계급 여성에게서 변혁의 가능성을 찾거나, 이들의 운명에 공감하는 글쓰기를 했다. 이 여성들은 식민지 시기 사회·정치적 변화, 그 격랑의 중심에 선 존재들이다. 본고는 구여성, 하층계급 여성의 운명이 어떻게 구체적

4) 필자는 다른 글에서 강경애의 후기 작품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로 인한 두 가지 경로를 밟고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그 글에서 필자는 하층 계급 여성의 궁핍상을 그릴 때는 현실세계의 힘이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편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치며, 반면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인물들을 그릴 때는 회고와 반성이라는 주관적인 세계에 함몰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사실 식민지 시대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문제』 이후 강경애의 후기작들은 간도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더 이상 낙관적 전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후기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구여성의 수난이라든가 여성적 자질들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독특한 윤리적 지평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점 역시 현실을 타개하려는 작가적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줄고, 「강경애-간도 체험과 지식인 여성의 자기반성」, 『역사비평』 33호(역사비평사, 1996 여름) 참고.

5) 「지하촌」은 간도가 아니라 작가의 고향인 용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항일혁명운동의 퇴조에 따른 전망의 상실이 작가의 창작방향이라든가 여성 현실의 형상화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언급한다.

으로 형상화되는지를 가사노동이나 어머니 노릇과 같은 체험의 측면, 신 여성과 구여성의 대립적인 표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작가의 독특한 여성주의적 윤리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소금」의 문제성, 이산(diaspora)과 여성

일본의 식민지 농촌 수탈정책으로 인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주해갔던 땅 간도. 1930년대 간도는 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반일자치운동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파시즘 정책의 강화로 인해, 항일무장투쟁은 쇠퇴의 길에 접어든다. 이런 현실에서 주로 소작농이었던 간도 유이민들은 비참한 주거환경과 마적단, 자위단 등의 공격, 오족불협화(五族不協和)라는 민족간 갈등 등으로 인해 궁핍과 일상화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간도의 봄」(『동아일보』, 1933.4.23)과 「이역의 달밤」은 일본의 군국주의 확장 조짐과 간도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돋보이는 글이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가는 ‘대자본의 잠식’ 및 만주사변 이후 가속화된 일본의 파시즘화, 세계체제의 변화에 따라 날로 피폐해져 가는 간도의 현실, 그 불모의 땅에서 생존의 역사를 쓴 민족의 운명을 예리하게 파악하였다.

이곳은 간도다. 서북으로는 시베리아, 동남으로는 조선에 접하여 있는 땅이다. 추울 때는 영하 40도를 중간에 두고 오르고 내리는 이 땅이다.

그나마 애써 농사를 지어 놓고도 또다시 기한(飢寒)에 울고 있지 않는가! 백미 1두에 75전, 식염 1두에 2원 20전, 물경 백미값의 3배! 이 일단을 보아도

철두철미한 **수단의 전폭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가정이 공어 맹호야'라던가? 이 말은 일찍이 들어왔다.

황폐하여 가는 광야에는 군경을 실은 트럭이 중형으로 질주하고 상공에는 단엽식 비행기만 대선회를 한다.

대산림으로 쫓기어 **을 들고 *****하는 그들. 이 땅을 싸고 도는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저 극단과 극단으로 중간성을 잃어버린 이 땅이다. (중략)

군축은 군확(軍擴)으로, 국제 협조는 국제 알력으로, 데모크라시는 파쇼로, 평화는 전쟁으로... 인간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궤도를 여실히 밟고 있다. (『이 역의 달밤』, 『신동아』, 1933.12)⁶⁾

작가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간도 이주농민들의 현실을 파시즘화로 치달고 있는 국제정세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전지구적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백미값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소금값이 오른 사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 『소금』에서 자세히 형상화되고 있는 점이라 주목을 요한다.

이런 가혹한 현실은 생계 외에 가사노동까지 전담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억압으로 다가온다.

부인들은 그나마 잠조차도 못 얻어 자는 것이 이 농촌의 부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도 밤이 되면 빨래질해서 옷 꿰매느라, 내일 아침 떡이-조를 찜어 밥을 만들며 밀을 갈아 죽 쑤 준비를 하기에 그 밤을 새우는 것은 거의 늘 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여름밤 농촌의 풍경 점점(點點)』, 『신가정』, 1933.7)⁷⁾

『소금』은 봉염 어머니라는 한 여성의 계급적, 민족적 각성과정을 다룬 각성소설이자 당시 간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운명의 변전을 거듭하는 여

6)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소명출판, 1999), p.745.

앞으로 강경애 작품의 인용은 이 책의 면수를 따를 것이다.

7) 위의 책, pp.739~740.

성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봉염 어머니의 일대기는 '소금'으로 상징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대다수 이주민 농촌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이 작품이 여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간도체험을 다룬 후기 작품들 중에서도 각별히 주목되는 까닭은 이주/이산을 야기한 원인을 여성의 체험 및 생존의 서사와 긴밀하게 연관지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⁸⁾ 작품에서 '소금'의 부족 상황⁹⁾은 간도 이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봉염 어머니가 생존의 막다른 길에서 소금 밀수에 나서는 작품 종결부까지 고려하면 서사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

특히 '2.유랑' 장은 한 여성의 유랑에 내포된 민족적, 계급적, 성적 의미를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다. 지주 팽등을 만나러 갔던 봉염 아버지는 공산당의 손에 죽고, 아들 봉식 역시 가출해서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잡혀 총살당한다. 이 하층계급 가족의 해체 역시 강경애의 후기 소설들과 유사

8) 필자는 「소금」이 강경애 후기 작품의 특징을 가장 잘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 작품에서 후기 작품으로 이행하는데 전기(轉機)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상 3장과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장을 나누어 논의한 것이 이 때문이다.

9) '소금'은 "생각하니 자신은 소금 들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을 한다"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층계급 여성에게 걸락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금에 대한 봉염모의 생각은 항상 그 끝이 남편과 아들, 자신이 거두고 보살펴야 할 가족으로 귀결된다.

그는 무심히 만져지는 소금덩이를 입에 넣으니 어느덧 입안에는 군물이 시르르 돌며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싶게 입맛이 버쩍 당긴다. 그때 그는 문득 남편과 아들딸이 생각키우며 그들이 있으면 이 소금으로 장을 담가서 반찬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그러나 그들을 잃은 오늘에 와서 장을 담글 생각인들 할 수가 있으랴! 그저 죽지 못해 먹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생각하니 자신은 소금 들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을 한다. (pp.536~7)

위 예문은 여성작가이기에 포착할 수 있는 미각과 촉각 등을 하층계급의 생존 조건과 결부시켜 묘사한 대목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계지향적, 타자지향적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게 간도의 정치적·사회적 정세 변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 해체 이후 모녀가정 앞에 닥친 생존의 절박한 상황은 중국인 지주의 강제적인 성폭력, 임신, 출산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훼손을 매개로 전개된다. 팡둥의 집에 거주하던 봉염 어머니는 팡둥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내쫓겨 헛간에서 아이를 낳는다. 지주 팡둥과 봉염 어머니의 관계는 계급적·민족적 모순에 성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팡둥의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에”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한다. 출산은 허기와 비천함을 동반한다. ‘흉내에 피비린내를 품은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살기 위하여 파뿌리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상황, 그리고 이와 같은 비루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삶의 환희’를 느끼는 일련의 출산 과정을 보면 여성의 출산이 죽음과 삶, 비천함과 충만함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은 모성의 현실적 국면, 즉 어머니 노릇의 어려움을 잘 포착하고 있다. 봉염모에게 어머니 노릇의 어려움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젖어미’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제 새끼를 죽인” 어미로서의 자책감과 젖어미로 키운 명수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어머니 노릇에 대한 통념을 벗겨낸, 육체적 친밀감을 기저로 형성된 모성의 현실적 국면을 드러낸 것이다. 육체적 친밀감은 봉염, 봉희의 눈에 이어 명수의 눈을 떠올린다거나, “명수가 젖을 먹으며 그 토실토실한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생각이 나는” 장면에서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작품은 출산 및 양육을 신비화하거나 여성의 보편적인 자질로 추상화하지 않고 몸의 체험에 기반해 형상화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소금」은 여성의 시각에서 가족의 해체나 이산문제를 민족적 이산의 문제와 결부해 그리고 있다.

강경애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계급적, 성적 조건으로 인해

끊임없이 이동한다. 가령 『어머니와 딸』의 옥이는 고향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구여성에서 교육받은 신여성으로, 『인간문제』의 선비는 고향 용연에서 서울로, 다시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구여성에서 여성노동자로 전환한다.

특히 「소금」의 봉염 어머니는 고향땅-간도 지금 터전-용정의 지주 광동집-해란강변 헛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전락을 거듭한다. 아이들만 있는 셋방과 젖어미로 들어간 집 사이를 오가는가 하면, 아이들마저 죽은 후에는 소금 밀수를 하러 또 다른 유랑의 길을 떠난다. 얼핏 보더라도 이와 같은 공간이동이 친밀한 공간에서 낯선 공간, 예측의 공간으로의 이동이자, 공동체적 공간에서 가족 해체 후 수난의 공간으로의 이동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듭되는 유랑은 농토의 뺏김, 남편의 죽음, 지주의 성적 유린, 출산, 아이들의 죽음과 같은 중첩된 수난에 기인한다. 가부장적 질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당시 상황에서 봉염 어머니의 모자가정은 그만큼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수난은 민족의 수난과 결부되어 있다. 작가는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을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간도 내부에서 이주민으로서, 타자로서 위치지어 진 우리 민족의 현실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금」은 작품 후반부이 비야, 즉 봉염 어머니가 일본 순사에 게 소금 자루를 빼앗기는 지경을 당하자 갑자기 항일유격대 대원의 연설을 떠올리며 계급적 각성을 이루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는 점 때문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 작품은 ‘항일 유격대의 모습과 그에 대한 민중의 감정을 암시적으로 반영하고, 전망을 드러냈다’¹⁰⁾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바처럼 성적으로 타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현실을 민족의 이산과 결부해 사실주의적으로

10) 이상경, 『강경애-문학에서의 성과 계급』(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p.82~5.
이상경은 이 작품이 ‘간도문학’이 우리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의 최대치를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위의 책, p.81)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그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학적 성취의 상당 부분이 구여성, 하층 계급 여성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고평하지 않고 이들의 여성적, 모성적 특성을 현실의 맥락에서 포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 역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이 상상으로 구축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신성하고 완벽한데 반해 여성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성이 분열적일 수밖에 없음은 『소금』에서 봉염 어머니가 자기 핏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젖어미 노릇을 하다 자식들을 차례로 잃게 되는 역설적 상황, 자기 젖을 먹여 키운 아이에 대한 애정, 자식을 다 잃고도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비루한 현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된다. 이 현실의 어머니와 모성이 처한 위기와 분열은 민족-국가의 상실, 이주민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약」, 「번뇌」, 「동정」에서 구여성의 전략이라든가 죽음 역시 그 근인(根因)은 민족의 해체로 인한 이산, 이주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구여성과 체험의 윤리

강경애의 작품에서 ‘구여성’은 초기작 『어머니와 딸』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머니와 딸』에서 어머니 세대에 속하는 열분과 산호주는 ‘구여성’의 운명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구여성들은 축첩, 매춘, 조혼문제와 같은 전근대적 유제로 인해,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신여성의 존재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딸 세대인 옥이 역시 구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봉준이 신여성인 숙희를 짝사랑하여 병이 나자, 숙희를 찾아가 봉준을 만나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양처(良妻)’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편을 ‘기른다’라는 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그녀는 보살피는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른바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신식학문을 접하고, 노동운동을 하다 잡힌 영실 오빠를 목격하고 구세대의 의식과 결별한다. 『인간문제』의 선비 역시 여성노동자로 각성하기 전 작품 전반부에서는 성적, 계층적으로 억압 받는 식민지 시기 구여성의 면모를 여실하게 지니고 있다. 선비는 지주 정덕호의 성적 유린에 저항하지 못한 채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몸을 더럽힌 바에는 아들이라도 하나 낳고 이 집안에서 맘놓고 살았으면.”하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거둬드는 유린에 탈항을 결심하고서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 성격 탓에 선뜻 길을 나서지 못한다. 이와 같은 소극성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구여성의 사실주의적 재현과 관련하여 뛰어난 점은 가사노동을 둘러싼 여성주의적 정서를 잘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봄내 모아온 계란을 옥점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 목화송이나 부엌 가득한 그릇들에 애정을 보이는 것¹¹⁾에서 드러나듯 선비는 자기가 노동한 산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¹²⁾ 하지만 선비는 노동수단과 그

11) 바리만은 웬일인지 놓고 나가기가 아까웠다. 보다도 섭섭하였다. 동시에 부엌 찬장에 가득히 들어 있는 바리, 사발이며 탕기, 대접, 찻시, 온갖 그릇들이 그의 눈에 뚜렷이 나타나 보인다. 그가 하루같이 알뜰히도 만지는 그 그릇들! 꽃무늬에 김승무늬를 돈쳐 동그렇게 혹은 네모나게, 크고 또는 작게 만든 그 그릇들! 그가 그나마 이 집에 정붙인 곳이 있다면 이 그릇들일 것이다. (p.301)

12) 『인간문제』의 전반부는 선비의 이야기와 첫째의 이야기가 교차 진술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남녀가 노동과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는 장면 역시 내적으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가령 다음을 보자.

마당이 보이지 않도록 쌓이는 저 벼알! 병아리의 털같이 그렇게 노란 수염이 하늘을 가리키고 쌓인 저 벼알! 저 벼알은 역시 자기들에게는 귀엽고 아름다운 빛만 보이고 나서, 맘놓고 만져보기도 전에 덕호의 창고로 들어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242면)

흰 송이를 알알이 골라가며 치마앞이 벌어지도록 따서 모은 저 목화송이! 머리가 떨어지는 듯한 것을 참고 이어 나른 저 목화송이! 자기들에게는 저 고리 솜조차도 주기 아까워 맥빠진 낡은 솜을 주면서 계란 밑에 놓을 것은 서울 갈 것이니 햇솜을 준다.(218면)

후자는 비록 할법의 생각이긴 하지만 ‘마당이 보이지 않도록 쌓이는 벼알’/‘치

산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게다가 선비의 노동은 집안일이긴 하지만 지주 집안의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노동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소금』의 발단 부분 역시 당시 가옥구조나 이주 여성의 가사노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가령 방을 쓸어내고, 팔을 고르고, 폐주를 손질하고, 소금 걱정을 하는 등 자잘한 가사노동의 일상적 측면이 부각된다. 이 장면은 뒤이어 제시되는 남편의 죽음에 그 남루한 일상마저 앓아가는 계기가 됨을, 그리고 남편의 죽음 이면에는 간도의 여러 정치적 세력간의 갈등이 놓여 있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역의 달밤』과 같은 수필에서도 작가의 눈은 엄혹한 현실 속에서 시적 순간을 포착하는데 이 역시 여성의 가사노동 현장을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집집 마당에서 빨강게 움직이는 다림불이며 채마밭에 하얗게 널린 다림질할 옷들. 어느 것 하나 시 아닌 것이 없습니다.”와 같은 대목은 빨간 다림불과 하얀 옷들의 선명한 색상 대비가 두드러지는데 일상 속에서 선명한 시각성과 미학을 발견한 예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힘들던 빨래질에도 일종의 취미가 붙으며 때로는 예술적 감흥”이 생겼다고 솔회한 바 있다.

그런데 가사노동을 비롯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강경애의 시각을 두고 연구자들의 평가는 상반된다. 작가가 가사노동이 지닌 억압적 측면을 보지 못한 채 남성이 요구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면모를 지녔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¹³⁾, 생활과 문학을 병행하려는 면모를 지녔

마음이 벌어지도록 따서 모은 목화송이가 유사한 의미 계열체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덕호의 창고에 쌓이거나 한날 계란 받침대로 쓰이는 것에서 이들이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13) 박혜경은 작품에 드러난 계급주의 이념이 작가의 남성의존적이거나 가부장적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강경애의 대표작 『인간문제』의 경우에도 가부장 사회가 만들어 낸 여성적 자질들이 계급주의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가 작품이 산출된 당시가 아닌 현재적 관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충실한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노동여성과는 달리 노동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필 이외에 소설에서 가사노동이 그려지는 전후백락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가사노동은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결부되어 일방적으로 신화화되기도, 폄하되기도 않은 채 현실적인 노동의 한 국면으로 그려지거나, 『인간문제』에서처럼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피억압 계층 여성의 존재조건을 적절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여성과 그들의 노동에 대한 호감어린 시각에는 이 구여성들이 하층계급이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작가의 계급적 관점이 관철되어 있다. 강경애 소설에 재현된 구여성의 형상은 당대 식민지 현실 속에서 하층계급 여성이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구여성'의 형상은 당대 현실, 좁게는 간도 현실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작가의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재현된다. 하지만 아이를 거두어 키우고, 먹이고 하는 어머니 노릇은 생존과 관련해서 자명한 현실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후기 소설인 「소금」, 「보자」, 「바악」, 「지하촌」 등에서는 필자기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는 '빈곤의 모성화'¹⁴⁾ 양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점에 근거한 것도 문제이거나 여성적 자질들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의 산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호 (소명출판, 2003), pp.266~274 참고.

- 14) 제3세계 혹은 식민지 현실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 계급적, 민족적으로 당하는 질곡을 '빈곤의 여성화'라 한다면 그 어려움은 특히 부재하거나 허약한 남성, 국가를 대신해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기혼여성에게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를 '빈곤의 모성화'로 지칭한 바 있다.

줄고,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소명출판, 2003), p.261.

다. 이 작품들은 만주공산당 운동, 항일운동의 실패와 그로 인한 정세의 악화와 같은 간도의 상황을 배경으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극한적인 가난과 씨름하는 어머니나 모자 가정의 생존위기를 그리고 있다. 가령 「모자」와 「마약」에서 남편은 부재하거나 마약 중독자요 도덕적 마비 상태에 이른 인물이다. 그로 인해 이들은 아이와의 동반 죽음(「모자」), 인신매매와 죽음(「마약」)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같은 여성의 전략과 소극적인 대응에는 단순히 작가의 페미니즘적 인식의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내재해 있다. 「모자」의 남편은 항일운동을 하다 산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마약」에서 남편은 소작을 떼인 후 마약에 탐닉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부재나 무능력은 당시 간도의 정세변화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들은 모성적 자질이 지닌 특성 중 하나인 대상과의 미분리성, 통합성으로 인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모자」에서 승호모는 “아버지가 못다한 사업을 이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라는 다짐처럼 부계로 계급투쟁이 이어지길 바라지만, 사실 이같은 다짐은 현실적인 타개책이 되지 못한다. 실제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눈처럼 엄혹하고 막막하기 때문이다. 「마약」의 아내 역시 모성에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다. “바시시 이불에서 몸을 빼칠 제 후끈 일어나는 땀내에 보득의 기저귀 한 끝이 너풀 코끝에 스치는 듯. 이제 가서 보득일 꼭 껴안을 것이 가슴에 번듯거린다”, “주르르 흘러오는 산바람이 그의 몸에 휘어 감기자 내 애기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는 듯”과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주변의 상황, 사물을 아이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이는 모성적 사고의 전형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구여성들이 모성적 사고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아이와 일체가 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해체는 이들이 당면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가족 해체는 당시 간도 및 만주에서 일본의

파시즘 체제가 강화되고, 만주사변과 무력항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 동시에 가족 해체의 근인(根因)은 민족의 해체 및 상실에 있다. 더욱이 간도이주민의 경우 이미 본토(본국)로부터의 이산과 이주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던 터라 가족 단위의 해체는 주체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쯤 되면 강경에 문학에서 모성이 주되게 부각되는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성은 이산과 이주라는 현실적 난관이 왜 여성에게 더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둬드는 이산의 상황을 돌파하거나 상상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성성과 거기에 기반한 여성적 윤리는 자칫 하면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추인하거나 모성신화를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의 억압 상태를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강경에는 여성 개인의 생물학적 조건으로서의 모성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닌 모성을 그리면서도, 항상 구체적인 몸이라는 경로를 거쳐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성을 확보한다. 가령 식민지 시기 빈궁문학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지하촌」을 보자. 이 작품에서 남성-가장은 부재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반면 여성들은 모성과와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모성은 뒤틀린 육체, 불임 혹은 사산하는 육체로 재현된다. 그녀들은 빈궁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사산을 하거나 불구자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은 칠성이, 큰년이처럼 신체적 불구이거나, 제대로 약을 못 쓰거나 먹을 것이 없어 병들고 굶주리며, 태어나자마자 죽어간다. ‘지하촌’이라는 제목에 상응하는 비위생적이고 궁핍한 주거공간, 여성과 아이들, 신체적 기형을 지닌 이들과 같은 주변성의 상징들이 증첩되면서 식민지 현실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여성의 현실, 엄밀하게는 어머니의 현실이 있다.

가) 해종일 김매기에 그 몸이 고달팠겠고 더구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

려기에 그 몸이 지칠대로 지쳤으련만, 또 아기에게서라도 시달림을 받으니, 오 늘밤이라도 잠만 들면 깨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피로한 몸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미웠다.(612면)

나) 영애를 낳아 놓고 그 다음날로 보리마당질 하던, 그 지긋지긋하던 때가 떠오른다. 하늘이 노랗고, 핑핑 돌고, 보리 이삭이 작았다 커보이고, 도리깨를 들 때, 내릴 때, 아래서는 무엇이 몽클몽클 나오다가 나중엔 무엇이 묵직하게 매어달리는 듯해서 좀 만져 보려 했으나, 사이도 없고 또 남들이 볼까 꺼리어 그냥 참고 있다가 소변보면서 보니 허벅다리엔 피가 흥건했고 또 주먹 같은 살덩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613면)

예문 (가)에서 농사일과 가사노동에다 육아까지 전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의 눈에 “어딘지 모르게 미운” 것으로 비춰지고, “잠만 들면 깨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자아낼 정도로 탈신화되어 있다. 예문 (나)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입을 빌어 비체화(卑體化)된 몸의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어머니의 몸은 깨끗하고 풍요롭기는커녕 피가 흐르고, 자기 몸과 분리된 듯한 이질적인 ‘살덩이’를 품고 살아야 하는 비체화된 몸이다.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통상 여성의 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화인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성스러운 몸이 아니라 노동과 출산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어머니의 몸은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실제 몸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경애는 식민화된 조선의 현실, 이산과 이주의 현실을 구여성의 ‘낡은’ 자질과 수동성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구여성의 낡은 자질 안에 내포된 여성적 윤리를 체험의 국면에서 포착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4. 신여성의 자기 반성과 구여성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경애의 후기 소설은 구여성의 체험과 윤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한다. 이 구여성들은 신여성, 지식인 여성의 자기 반성을 촉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강경애의 작품에서 신여성은 재현의 주 대상이 아니다. 설사 그려진다 하더라도 신문이나 잡지 문예란에서 본 대로 몇 번 장난 비슷이 지어보다가 일약 '여류문사'가 된 「그 여자」의 마리아나 『인간문제』에서 옥점¹⁵⁾의 형상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듯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작가의 자전 소설인 「원고료 이백원」 역시 신여성의 부정적 행태를 남편의 입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걸이라는 두리훤넨이 되고 싶은 게구나. 아, 일류문인으로서 그리해야 하는 게지. 허허 난 그런 일류 문인의 사내 될 자격은 못가졌다. 머리를 지지고 볏고, 상판에 밀가루 칠을 하구, 금시계에 금강석 반지에 털외투를 입고, 입으로만 아! 무산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 되고 싶단 말이지. 당장 나가라! (564면)

남편이 말하는 신여성의 외양은 「그 여자」에 나오는 마리아와 흡사하다. 그런데 정작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신여성 혹은 지식인 여성의 자기 반성이 간도의 현실과 관련하여 설득력있게 그려진 데 있다. “돈이 생

15) 옥점은 '백어같은 손길'로 피아노를 치거나, “그날 그날에 아무 새로운 일이 없이 밥 먹고 피아노 치고 잠자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풀이하는” 무위의 생활을 한다. 선비가 옥점모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을 보고도 “싸우는 일도 한 새로운 일이므로 일어나는 흥분과 함께 통쾌감을 느낄” 정도로 히스테리칼하고 윤리적으로 마비되어 있다. 그녀가 앓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증은 연애의 실패나 비생산적인 무위의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선비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폐병이라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긴 오늘에 그것도 남편이 번 것도 아니요.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의 원이던 반지나 혹은 구두나를 선선히 해 신이라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동지가 내 동지이므로 감옥에 간 동지의 가족을 위해 돈을 쓰기로 마음먹는 것은 자기 욕망과 공동체의 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간도의 정세 악화 역시 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향을 등진 채 만주로 온 이주민 여성들이 요릿간이나 부호의 첩으로 팔려가는 현실, “토벌단이 들어밀리어서 지금 한창 총소리와 칼소리에 전 대중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농사조차 짓지 못하고 목숨이나 구해볼까 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용정시와 국자가 같은 도시로 몰려드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적 소명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의 구타라든가, 작가의 자기 반성이 남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이 작품을 페미니즘적 시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존 논의는 전체를 도외시한 일면적 해석이 아닌가 싶다.

‘구여성과 신여성간의 연대’ 모티프는 간도에서의 낙관적 전망이 사라진 후 창작된 작품인 「번뇌」, 「동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구여성과 신여성을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신여성 혹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구여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망이 사라진 시기에 작가의 창작방향은 지식인 여성의 자기반성이라는 맥락에서 구여성에 대한 연민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번뇌」는 “되놈의 만두 몇 개만 포켓에 넣어 가지면 이 넓은 만주 천지를 번갯불같이” 뛰었던 R이 8년간 감옥에 있다 나온 후 정세의 악화 속에서 겪은 후일담을 지식인 여성인 ‘나’가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후일담의 핵심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동지의 부인에 대한 애정이 싹트면서 겪는 내적갈등과 극복에 있다. 동지의 부인인 계순은 “그저 되는 대로 주먹처럼 생긴 얼굴”이지만 “몸가짐이며 늘 하는 음식 제도며 옷범절까지 질서 있고 엄전”하게 하는 인물이다. R이 계순에게 연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가 구여성의 긍정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꽃처럼 희고 부드러운 비누와 양젓물내가 일절 없고 맑은 샘물내가 물씬”나도록 빨래를 희게 할 뿐 아니라, 돌 한 개 씹은 일이 없고 머리카락 한 오라기 풀라내지 못할 정도로 밥을 정갈하게 하며, 구수한 맛이 나는 반찬을 해낸다. 그는 그녀에 대해 ‘어린애가 어머니를 신임하듯 하는 감정’을 품는다. 계순의 품성이 모성적 자질에 기인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 ‘나’는 후일담을 듣는 소극적 청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R과 마찬가지로 계순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한편 구여성의 운명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신의 대응방식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동정」의 산월이는 아버지가 진 농사 빛 때문에 매소부로 팔려 용정까지 흘러온 여성이다.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막상 그녀가 탈출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으로 탈출을 권할 때와는 달리 그녀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어제 수해구제음악회에서 3원을 기부하였는데, 또 돈 쓸 일이 나지 않는가”하고 이기적인 계산을 한다. 그리고 “가두 말야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나와도 며칠 전부터 의론이 있어야지”라는 ‘이성’의 논리로 정당화하려 한다. 산월의 분노와 자살이 오랫동안 누적된 고통이 폭발한 결과인데 반해, 이 신여성의 자리는 ‘이성’으로 위장된 채 안전하게 지겨진다. 산월의 죽음 후 그녀의 자살이 자신의 동정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자책하지만, 이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두 작품은 결말이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고,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⁶⁾ 소설적 성취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신여성의 (소극적인) 자기반성과 구여성에 대한 호감이나 연민이라는 구도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어두운 창작현실 속에서도 신여성과 구여성간의 정서적 연

16) 이상경은 이와 같은 특성을 ‘소설의 수필화’ 경향으로 파악한다.
이상경, 위의 책, p.129.

대감을 통해 작가적 소명과 윤리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5. 나가는 말

본고는 강경애 작품에서 ‘이산의 체험’과 ‘모성 체험’이 어떻게 결부되면서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강경애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이 두 축은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민중 여성의 주체 형성이 상호 연동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두 축은 다름 아닌 ‘구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당대 작가들이 이른바 근대적 여성성의 구현물인 신여성을 집중적으로 재현하면서 구여성은 재현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유혹적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자질을 지닌 신여성의 이중적인 국면을 포착하기 위한 대타개념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구여성은 신여성과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를 지니지 못한 채 당시 재현의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인 미몽의 표징으로 여겨지거나 근대적 여성성을 폄하, 단죄하려는 측에 의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그려졌다. 반면에 강경애는 구여성의 수난을 형상화하면서도 그 수난이 민족적, 계급적, 성적 특성들이 중층 결정되면서 빚어진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며, 지식인 여성의 자기 반성을 촉발하는 구여성의 실상이라든가 윤리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강경애는 간도 땅에서 이주민의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 역시 이주민으로 살았던 탓에 민족과 여성, 식민지 자본주의와 여성의 문제를 보는 ‘국제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생애와 작품이 전지구화 시대에 민족의 존립과 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오가는 현재 시점에서 새삼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김양선, 「강경애-간도체험과 지식인 여성의 자기반성」, 『역사비평』 33호, 역사비평사, 1996년 여름.
- _____,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강경애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
- 나병철,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여성문학연구』 8호, 예림기획, 2002.
-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호, 소명출판, 2003.
- 이상경, 「만주 항일혁명운동의 문학적 수용-강경애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 _____, 『강경애-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 태혜숙, 「제3세계 여성들의 글쓰기-전지구화, 이산, 민족에 관하여」, 『여/성이론』 9호, 여이연, 2003 겨울.

Abstract

Kang Kyong-ae's later novels and the Ethics of Experience

— centering on the experience of diaspora and motherhood —

Kim, Yang-Sun

The characteristic of Kang Keong-E's later novels is in the re-construction of diaspora as the female's viewpoint. So this thesis intends to look at her later novels, centering on the experience of diaspora and motherhood.

First, <The Salt> deals with the cause of emigration and diaspora in association with the woman's experience and her narrative of survival. Bong Yeom's mother in <The Salt> under goes all sorts of hardships like the husband's death, Chinese landowner's sexual violence, bearing, and children's death. And she wakes up to the subject in the class and nation through these hardships. This novel grasps the complex aspects of motherhood in position of lower class woman, and find out the reality which her motherhood can not be protected at the Korean's marginal position, that is Kando emigrant.

Kang Keong-E's later novels, <The Salt>, <The Mother and Son>, <The Drug>, <The Underground Village>, shows the 'maternalization of poverty'. Though the Old(pre-modern) women in her novels have the maternal thought, the dissolution of family is the clear reality to them. The motherhood not only shows why the diaspora and emigration are problematic to the women but also presents how they break through or transcend imaginatively the situation of emigration. Also this motherhood has the social meaning, and ensures the reality because of the concrete experience about female body.

In <The Anxiety>, <The Sympathy>, the pity and love for Old(pre-modern) woman are presented in the context of the self-reflection of intellectual woman.

In conclusion, the two axes, 'experience of diaspora' and 'motherhood of Old woman', which constituting the world of Kang Keong-E's later novels, show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culiarity of colonial Chosun and the process of subjectivity in lower class woman.

key words : diaspora, motherhood, Old(premodern) woman, ethics of experience, realism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